

‘남원에촌’ 중심 남원 관광지도 바뀐다

2020년까지 총 612억원 투입
광한루원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전통·현대 함께 어우러진
체험문화·숙박관광 기반 조성

7동 24실로 구성된 전통한옥숙박단지도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8533명이 이용했으며, 객실가동률도 50%를 넘어서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에촌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사가 주관한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숙박부문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안숙선 명장을 중심으로 한 명

장의 여정, 조갑녀 명부의 민살풀이춤, 서당문화 체험과 연계된 관서당, 황의 초당, 관광객 편의를 위한 트래블라운지, 친수공간(실개천) 등이 조성됐거나 계획중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문화광장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문화관광형 장터 ‘꽃담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꽃담장은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속살을 보여주는 한편,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

을 남원에촌과 시내권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에촌과 광한루원, 이와 연계된 합파우 유원지 관광체험 시설, 시립김병중미술관 등은 기존의 남원 관광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광한루원 주변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남원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지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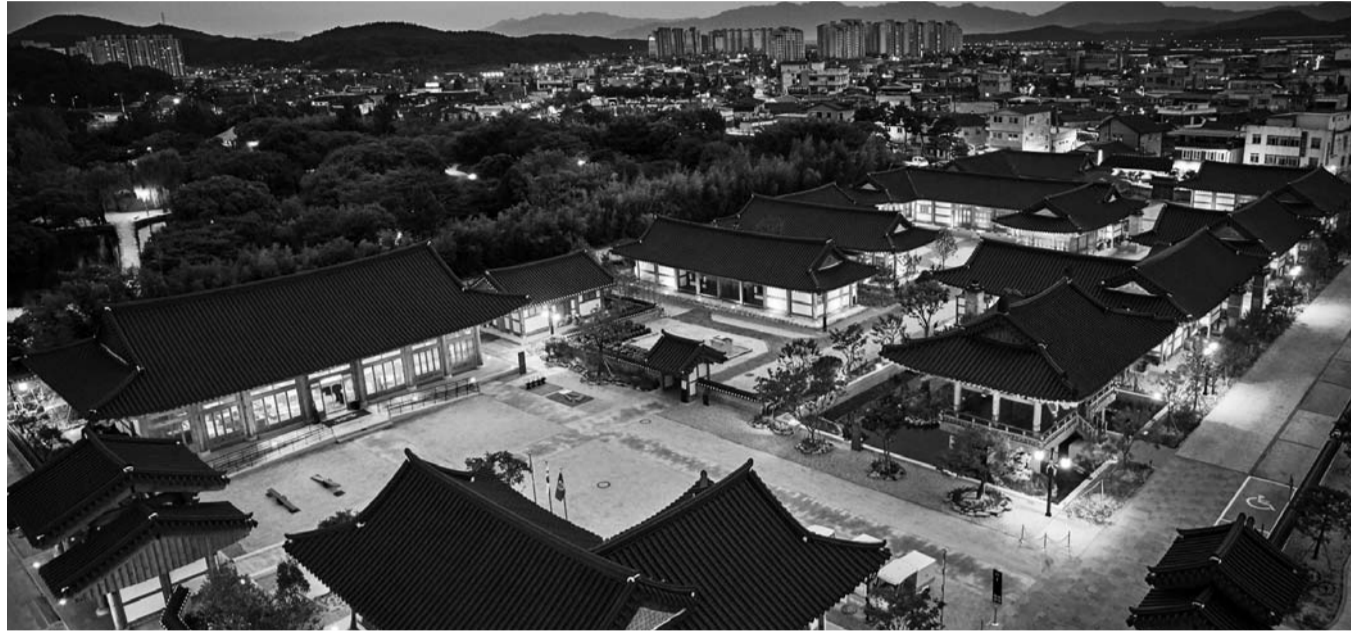
유기상(가운데)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복분자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공장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복분자 특화단지 활성화 주력

유기상 군수 입주기업 방문
애로사항 해결 등 소통행정

고창군이 복분자 특화단지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가 지난 16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복분자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유 군수는 과·채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내추럴코어와 웰빙바이오, 수산물·육류를 가공하는 참바다, 고창고구마 가공식품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복분자 특화단지는 부안면 용산리 일대에 19만6358㎡ 규모로 조성됐다. 이 산단에는 맥주, 농축액, 수산물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음료, 육류가공식품 등 9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근로자가 이 산단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산단에는 6개 기업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식품산업의 혁신이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업의 민원은 군수 직속 민원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고,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입주기업과 구마 가공식품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남원시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남원에촌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야경. <남원시 제공>

정읍시, 축산농가 조사료 동계작물 지원사업

내달 19일까지 신청자 접수

정읍시는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동계작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시는 2019년도 조사료 동계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조사료를 생산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조사료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법인 등 경영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번 사업은 곡물가격 상승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정읍지역에서는 올해 4700ha에서 9만 8000여의 조사료가 생산돼 축산 농가와 TMR사료공장 등에 보급됐다.
시는 2019년도 조사료 종자구입비용과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경종농가 생산 장려금,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 등에 772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시, 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교육 도시상 수상

군산시가 세계적인 평생교육상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 도시상을 수상했다.<사진>
우수교육도시상은 IAEC의 ‘참여를 통한 시민 교육’ 정신에 부합하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시책을 펼친 도시에 주어진다.
군산시는 세계 회원 도시 482곳을 대상으로 한 우수교육도시상에 응모해 멕시코 과나후아토, 포르투갈 세투발과 함께 선정됐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혁신시책을 펼친 점

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2009년부터 IAEC 아·태지역 네트워크 집행도시로 연속 선정됐으며, 2010년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IAEC 우수 교육 도시상 수상은 향후 국제교육 회원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산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교육도시와 평생교육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군산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속도낸다

광주시 등 62개 자치단체와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행 연대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시는 서울시와 광주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62개 자치단체들과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해 아동이 행복한 세상 구현에 나선다.
시가 포함된 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와 우수 사례를 교환하며 교류를 강화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교육 등에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제적 연대감 조성 등을 통한 아동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강원 횡성, 경기 광명·부천·수원·시흥·오산·용인·화성 등 12곳이 포함된다.
또 광주지역에서는 북구와 서구·동구, 경남 김해, 경북 구미·영주·포항이 함께 한다.
전남에서는 광양·순천·장흥·화순이, 전북은 군산·익산·완주·전주, 충남은 논산·당진·보령·아산·부여가, 충북은 옥천·음성·제천·충주가 협의회를 함께 구성한다.
시는 협의회에 참여해 아동복지 정책의 향상과 새로운 시책 등의 마련에 나선다.
또 아동복지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동복지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인구 증대 등에 나서 행복도시로의 건설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선진국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받게 된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관외 부직정 장기입원자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장기입원자 심사연계 및 의료이용과 다이용자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강화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1~2년 안에 대박납니다. 투자가치 최고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